정진원의 석보상절 이야기 ❼ 〈석보상절〉 3권: 싯달타 태자의 수업



▶ 한줄요약

싯달타 왕자는 7살에 태자로 책봉되고 500여 석씨 아이들과 교육을 받는다. 싯달타 왕자가 학당에 들어서자 스승은 자신도 모르게 일어서서 절을 하고, 그 비범함에 대한 찬시를 읊었다.

비범한 태자, 스승을 뛰어넘다

어느덧 4월이고 도처에 울긋불긋 꽃대궐을 이루고 있다. 싯달타 출가를 막기 위한 '삼시궁'의 모습이 이러할까. 이제 싯달타 왕자는 일곱 살이 되어 태자로 책봉되고 본격적인 전륜성왕의 면모를 드러내기 시작한다. 하나를 가르치기 전에 이미 백가지를 알아 오히려 스승을 가르치는 태자의 이야기를 시작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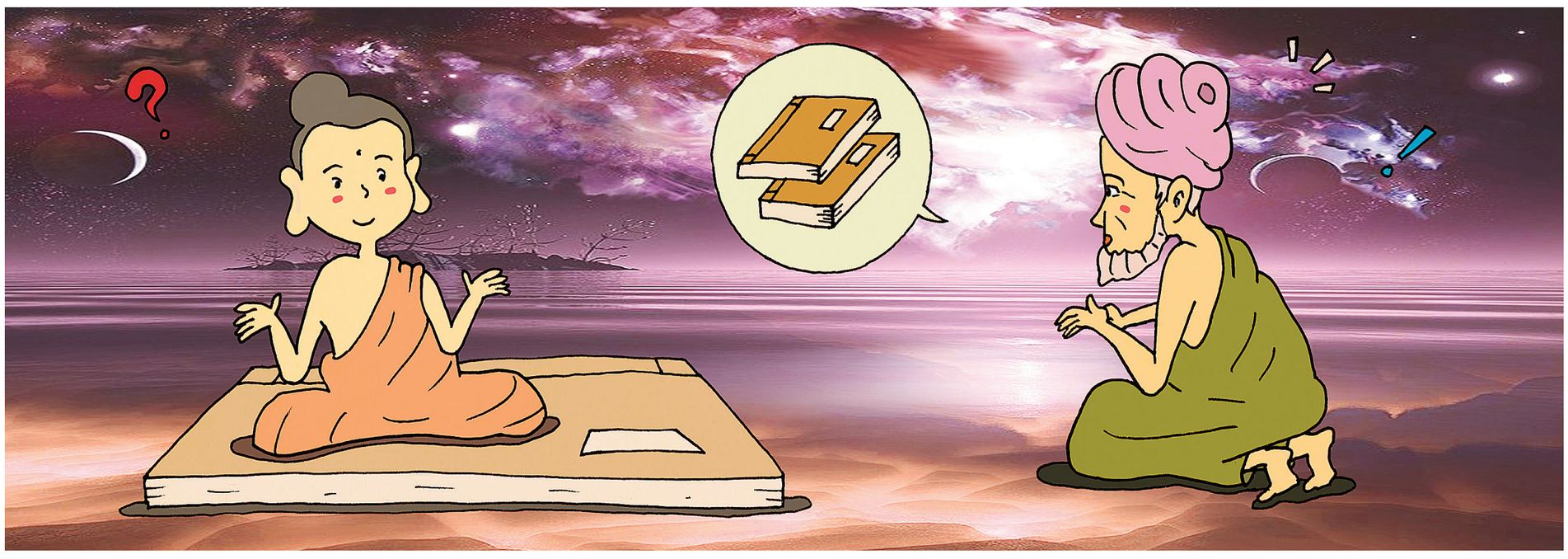


그림 · 강병호

삼십사장

사해(四海)의 바닷물을 이고 오거늘 태자의 머리에 붓고 태자를 세우셨습니다.

금륜보(金輪寶)가 날아가거늘 천하(天下)가 알고 나라들이 다 항복해 오셨습니다.

태자를 위하여 신하들이 동서남북 사해의 바닷물을 길어오니 정반왕께서 아들 싯달타의 머리에 물을 붓는 관정의식을 하고 태자로 책봉하셨습니다.

전륜성왕의 상징인 금륜보는 보는 나라들마다 항복하게 되니 천하의 나라들이 모두 조복하게 되었습니다.

〈월인천강지곡〉 제34장의 내용으로 석보상절 권3의 태자 책봉의식을 노래로 요약하고 있다. 이제 본격적으로 태자수업을 하기 위하여 스승을 구하고 공부하는 과정이 그려진다. 그야말로 석보상절 중 '자세히 할 상(詳)'으로 나열된다. 깨알같이 묘사된 내용은 잘 기억해 두었다가 변상도를 그려보고 싶을 만큼 눈에 선하다.

태자의 스승 비사바밀다라

왕이 백관을 모으시고 말씀하셨다. "천하에 그 누구가 지혜있고 재주를 갖추어 태자의 스승이 되겠는가."

모두 사뢰었다. "비사바밀다라(毗奢波 蜜多羅)야말로 가장 현명합니다."

왕이 비사바밀다라를 불러 말씀하셨다. "존자가 날 위하여 태자의 스승이 되어 주시오."

밀다라가 말씀드렸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백관(百官)'은 백 군데의 관청이니 큰 신하를 이르는 것이다. 이때 부처의 나이 일곱이시니 주나라 소왕 32년(B.C.962년) 경신이다. '존자(尊者)'는 존귀하신 분이라는 말이니 어진 사람을 공경하여 존자라고 하는 것이다.

역시 〈석보상절〉 사전인 '협주'에서 '백관'과 '존자'의 정의를 친절하고 쉽게 풀이하고 있다. 싯달타 태자의 스승으로 추천된 비사바밀다라(Visvamitra)는 '우주(Visva)의 친구(mitra)'라는 의미로 크샤트리아 출신인데 극심한 고행 끝에 범선(梵仙)이 되었다고 한다. 베다의 권위자로 알려져 있다. 싯달타 태자가 크샤트리아(찰제리종)이고 출가하여 고행 끝에 붓다가 되는 과정과 비슷한 스승 밀다라의 행적도 눈여겨 볼 만하다.

학업 시작과 신동 태자

태자가 동남동녀를 데리고 오백 석씨 아동들이 앞뒤로 둘러싸고 학당에 오르실 때 밀다라가 바라보고 가만히 앉아 있지 못하고 '자기도 모르게' 일어나 태자께 절하시고 두루 돌아보며 부끄러워하였다.

동남(童男)은 남자 아이요 동녀는 여자 아이다. 석동(釋童)은 석씨 성을 가진 아이들이다. 학당(學堂)은 글 배우는 집이다. 〈석보상절〉 협주의 설명이다. 학당은 '글 배우는 집'이라니 정겹고 다정한 풀이가 아닌가.

이렇게 태자는 같은 또래의 취학 연령의 석 씨 아이들 500명과 공부를 시작한다. 왕자니까 독선생을 모셔와 홈스쿨링을 할 줄 알았더니 학교 교육인 것이 또한 흥미롭다.

한편 스승 밀다라는 태자를 보고 'ᄒᆞ가라없이' 일어나 학생에게 절을 하고 부끄러워하는 장면을 연출한다. 'ᄒᆞ가라없이'는 뜻을 잘 모르는 15세기 단어이지만 〈불본행집경〉에는 '종좌홀기(從座忽起)'라고 나와 있어 '나도 모르게 홀연히' 정도의 뜻으로 유추할 수 있다. 혹시 지방 방언에서 아직 사용하고 있을지 모를 이 용례를 알고 있는 독자가 있다면 꼭 연락주시기 바란다. 이렇게 아름다운 우리말이 되살아난다면 참 좋겠다.

어쨌든 스승은 가르쳐야 할 학동인 태자를 보고 그 위의에 저절로 일어나 절을 하고 자신이 스승이 되기에 부족하다고 생각해 부끄러워하였다는 것이다. 아니나 다를까. 다음 첫 문답 장면에서 스승은 완전 K.O 패를 당한다.

싯달타 왕자, 7살에 태자 책봉
500명 석씨 일족과 동문 수학
태자 나타나자 스승 무릎꿇어
"뭇 글을 전부 통달" 찬시 내려

태자가 글 배우기를 시작하여 명주(明珠) 서안(書案)에 우두전단향 칠보 서판을 놓으시고 금붓을 잡으시고 글을 쓰며 물으셨다. "무슨 글을 가르치려 하십니까."

밀다라가 대답하였다. "범서와 거류서로 가르치려 합니다."

태자가 말씀하셨다. "글이 예순 네가지가 있으니 어찌 다만 두 가지입니까." 하시고 다 헤아려 이르셨다.

스승 밀다라가 항복하고 게송을 지어 찬탄하였다.

명주는 맑은 구슬이니 명주 서안은 명주로 꾸민 서안이다. 서판(書板)은 글쓰시는 널판이니 칠보 서판은 우두전단향나무로 만든 서판에 칠보로 꾸민 것이다.

예순 네가지 글은 범서, 거류서, 불가라서, 안거서, 만거서, 호중서, 취서, 반서, 구여서, 질견서, 타비라서, 이적색서, 타여서, 강거서, 최상서, 진서, 흉노서, 중간자서, 유기다서, 부사부서, 천서, 용서, 귀서, 건답화서, 진다라서, 마휴륵서, 아수륜서, 가루라서, 녹륜서, 언선서, 천복서, 풍서, 항복서, 북방천하서, 구나니천하서, 동방천하서, 거서, 하서, 요서, 견고서, 타아서, 득주서, 염거서, 무여서, 전수서, 전안서, 폐구서, 상서, 차근서, 내지서, 도친서, 중어서, 실멸서, 음서, 전세서, 치우서, 선적지서, 관공서, 일체약서, 선수서, 섭취서, 배향서이다.

이상은 협주의 내용이다. 〈불설보요경〉 제7권에서는 오히려 스승이 책의 종류를 묻고 태자가 답하는 형식으로 64종의 책을 열거하고 있다. 이 책들은 〈불설태자서응본기경〉에서는 스승이 말한 500권의 책 다음에 범서(梵書)를 태자가 소개하며 범왕이 전륭왕이 될 줄 알고 자신에게 전한 책이라고 설명하고 있다. 이름이 전해지는 것만으로도 압도되는 이 64종의 책을 모두 연구한다면 당시 학문의 세계가 도도하게 펼쳐질 것이다.

스승은 바로 두 손들고 태자가 신동을 넘어 하늘의 스승인데 어찌 가르치겠냐며 그를 기리는 찬탄의 시를 읊는다. 〈불설보요경〉에 다음과 같이 그 찬시가 전해지고 있다.

미치기 어렵도다, 참되고 깨끗하며 높으신 이여/ 세상에 계시면서 가엾이 여김 일으키어/ 온갖 법전을 모두 배우셨으면서/ 현재 서당 안에 드셨나이다.

모든 글의 이름을 다 말씀하셨지만/ 저는 근본과 끝도 모르옵니다./ 이 뭇 글을 모두 통달했으면서도/ 일부러 또 배움에 들어옴을 보이셨소.

감히 그 정수리를 살펴보지 못하고/ 사람만을 살피면서 예배할 뿐이오며/ 어떻게 크신 성인께/ 모든 글과 산수를 말씀하게 되오리까.

하늘 중의 하늘이라 하늘보다 뛰어나서/ 여러 하늘 가운데서 가장 으뜸이며/ 지극히 높아서 짝할 이 없고/ 세상에서도 비유할 수 없나이다.

이러한 위신(威神)으로써/ 엄숙하고 깨끗하게 좋은 방편 쓰시옵는데/ 누가 능히 맑고 밝음을 미치오리까./ 모든 세간들을 다 제도하오리다.

이 내용을 〈월인천강지곡〉에서는 다음과 같이 35장에 담았다.

삼십오장

밀다라는 두 책을 배워서 알기 때문에 태자께 가르치지 못합니다.

태자는 예순 네 책을 배우지 않아도 아시므로 밀다라를 또 가르치십니다.

이렇게 스승과 제자의 역할이 뒤바뀌는 싯달타 태자의 학교 수업 이야기는 비범한 왕자 탄생부터 예견된 바이지만 그래도 여전히 흥미롭다. 7살 어린 왕자 앞에서 쩔쩔매는 훈장은 마치 김홍도의 서당풍경을 비틀어 반전의 그림을 보는 것 같다. 훈장님 자리에 태자가 앉고 훈장님이 그 앞에서 글 못 외워 야단맞는 학동처럼 쩔쩔매는 장면을 상상해 보시라. 또한 〈월인천강지곡〉의 내용은 〈논어〉에서 배워서 아는 이(學而知之) 밀다라와 태어나면서 아는 이(生而知之) 태자의 경우로 명쾌하게 정리하고 있다. 애써서 배우는 이(困而學之)들인 우리 범부들이 보기에는 까마득한 경지이지만 그래도 이러한 천재와 성인들이 있어 세상은 날마다 새로워지는 것이 아닌가.

다음에 이어지는 태자의 배우자를 얻는 과정 또한 우리 상식의 허를 찌르는 이야기로 예사롭지 않게 전개된다.

〈동국대 세계불교학연구소 연구교수〉

연등시공전문기업 대광불교

연등자동승강장치 최초개발시공업체

대광불교는 연등전문 기업입니다. 대광불교만의 독특한 디자인과 숙련된 노하우로 각종 연등을 제작 보급하고 있습니다.
항상 등불을 밝히는 마음가짐으로 등 제작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연등 자동 승강장치

연등시공

대광불교 경기도 광주시 오포읍 매자리길 113 | E-mail : hskhsg@naver.com | 010-9446-1862 | 010-2788-7270 | 031)768-7270 | 031)768-7271